

3-8-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시편 83:1-18

말씀제목: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하나님

아삽은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의논하면서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는 나라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와 민족들을 미리
보시고 아삽을 통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삽은 오래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창 12:3)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인 악한 이란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래 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엘람 지역에 있는
이란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에, 엘람에 대한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힘의
우두머리인 엘람의 활을 꺾으리라.
또 엘람에게 내가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네 바람을 가져와서,
그 모든 바람들을 향하여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니 엘람의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을 민족이 없으리라. 내가
엘람으로 그들 원수들의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재앙, 즉 나의
불 같은 진노를 가져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보내리니 내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하리라.”(렘 49:34-37)

하나님께서서는 옛날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에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하던 하만을
교수대에서 죽인 것처럼 오늘날
이란의 독재자 하메니이를 부림절
기간 중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합군을 통해 죽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저주하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란에 있는 백만에 이르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잔혹하게 박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증거했습니다(갈 3:7).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엘람에다 세우고 그 왕과 고관들을 그곳으로부터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조만간 이란을 포함하여 온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란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중보기도 해야 하며 이때에 이란에 있는 지하 교회 성도들이 온 이란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려는 법들을 만들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는 교회를 저주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레미야의 예언이 현재까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람의 활은 꺾으셨지만 하늘의 네 바람을 가져와서 그들을 흩어버리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란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지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왕국이 오기 전에 조만간 오게되는 휴거와 대 환란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굳게 믿음을 지키며 절실히 회개하면서 하루 하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